

민주 원내대표 경선 변수 만발... 초선 표심 · 전당대회 구도

‘유권자의 40%’ 초선 표심 주목...청 출신 다수 입성해 친문 목소리도 커져 ‘더좋은미래’ 선택 주목...친문 견제심리 작동 여부 · 더시민 합당 여부 변수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몸집이 불어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초선들의 표심을 비롯해 당내 역학구도 변화와 전당대회 구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내달 7일 치를 예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3선 의원 24명, 4선 의원 11명 등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들이 대거 탄생했다.

당 내에선 벌써부터 출마 예정자들 간 돌발 경쟁과 교통정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투표권을 갖게 될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외) 의원 163명의 40%를 넘는 초선 의원 68명의 표심이 어

디로 향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에 후보자들의 ‘초선 표심 잡기’ 경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초선 의원들은 ‘캐스팅보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 외에 계파와 친소 관계를 알기 힘든 초선 의원들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출마 후보들은 초선들이 총선 기간 동안 내세운 공약 이행을 돕겠다는 것을 내세우며 개별 맞춤형 캠페인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정인 일부 중진 의원들은 벌써부터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축하인사 차 자연스런 스킨십과 러브콜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는 것은 ‘친문(親文)’ 표심이다. 이번 총선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며 늘어난 친문 성향 의원들의 표심도 당선 향배를 결정지를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당내 의원 성향을 보더라도 친문을 표방하고 있는 의원들이 강세가 확인한 만큼 친문의 표심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문 성향의 의원들의 경우, 이번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감지되면서 후보간 교통정리도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돌발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김태년·전해철 의원이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전 의원은 각각 4선, 3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당 내 경험과 입지를 바탕으로

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친문 진영에서 추가적인 출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진 의원 중에는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윤호중(4선) 의원도 있다. 윤 사무총장의 경우 김태년 의원과 같은 이해관계로 분류되면서 교통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6그룹 의원들이 다수 속해 있는 연구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도 관심사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인영 의원을 당선시킨 바 있는 더미래는 자체적인 후보를 내는 방안과 출마 후 지원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친문 체제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원내대표 경선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8월로 예정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야당 원내대표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여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고 있는 전당대회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친문 진영이나 86그룹 등 특정 계파나 세력이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모두 차지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당 안팎에서 우

려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언제 마무리될 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원내대표 경선 전에 합당이 이뤄지면 17명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도 투표권을 갖게 된다. 김윤호 기자

靑 “北 특이동향 식별 안돼”...김정은 위중설 선긋기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CNN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라며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CNN은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국가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에 2012년 집권 이후 매년 참석하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여러 추측을 자아낸 바 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전날(20일)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초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앞선 보도에 대해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의 유력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다만 청와대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두면서도 CNN 보도만큼 김 위원장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나온다. 관련된 정보나 보도들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CNN이 해당 첩보를 보도하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가 나오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영범 기자

통합당, 4년간 뒤흔었다...비대위·복당 논란까지 ‘4년전 판박이’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총선 참패 이후 내부 갈등을 빚는 모습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패배 이후와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84석을 얻으며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김종인 비대위를 구성해 위기를 타개하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듯 했지만,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면서 당내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당에는 관심을 돌 필요가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등 비대위원장 인선도 안갯속이다.

민주당이 광주서 유일하게 패배한 곳은

김경진 후보 근거지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압승했다. 광주 8개 선거구 전적은 8대0.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했다.

광주 투표소는 모두 369곳.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각 투표소 결과도 거의 비슷하다. 다만, 딱 1곳 투표소에서 민주당 후보가 경쟁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북구갑 우산동 제5투표소다.

광주 북구갑은 민주당 조오섭 후보와 ‘쓰까요정’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치열한 격전을 벌인 선거구다. 선거 결과는 조 후보가 득표율 57.79%로 37.60%를 얻은 김 후보를 꺾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를 보면 광주 북구갑 57개 투표소 중 56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지만 우산동 제5투표소만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

우산동 제5투표소 선거인수는 1393명, 이 중 694명이 투표해 조 후보는 301표, 김 후보는 334표를 얻었다.

우산동 제5투표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뒤진 이유는 김경진 후보의 핵심 근거지라는 점이 꼽힌다.

지역정의의 말을 종합하면 제5투표소는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한 곳인 말바우시장에 있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시장 상인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말바우시장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 후보 선거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실도 말바우시장에 있다.

김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 등은 상인들의 각종 민원 청구 역할을 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붙은 대형 플래카드도 말바우시장 상인들에게 선거기간 내내 홍보타워 역할을 했다. 사무소 직원들도 시장을 이용하면서 상인들과 친밀감이 높았다.

김 후보가 말바우시장을 위해 얻어낸 성과도 크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